

가을 전등사서 낭만에 젖고, 문화에 취하고

10월 3~11일 삼량성역사문화축제... '통찰' 주제로

흔히 고창로 오르는 길에는 오욕의 세월을 그대로 맞이했을 고목들이 길 옆으로 들어서 있다. 그래서인지 항상 고창로 가는 길은 낯설지가 않다. 언젠가 한 번은 외갓을 방문한 기시감이 고창로 가는 길에는 항상 존재한다.

강화 전등사도 마찬가지다. 전등사로 오르는 길에는 아름다운 고목들이 즐비해 서 있다. 가을 단풍으로 옷을 갈아 입은 고목들을 보며 마음을 '힐링'하고 강화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삼량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범우, 지용택, 최종수)는 오는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 간 강화도 전등사 일원에서 '제15회 삼량성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천년의 기다림, 새로운 시작- 2015 통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삼량성 문화축제는 지난 10여 년간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인천·강화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올해 삼량성 문화축제는 10월 2일 오전 10시 삼량성 전등사의 자연, 문화, 역사화를 표현하는 '미술 실기대회와 글쓰기 대회'로 시작한다.

이날 오후 7시부터는 방송인 전제향의 사회로 박상민, 김현정, 박학기, 유진박, 가비엔제이가 출연하는 '전등사 가을음악회'가 열린다. 전등사 음악회는 가을산사분위기와 관객 집중도에서 남달라 가수와

관객이 모두 만족하는 음악회 중 하나다.

10월 4일에는 다례제와 영산대제가 열린다. 다례제는 1600년 동안 전등사를 가꾸어 온 전등사 역대 조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로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오후 1시에는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대제'가 봉행된다. 축제 조직위는 2012년부터 매년 인천 강화지역의 호국영령을 발굴하여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강

삼량성·전등사 일원서 9일간 진행

올해 15회 맞아 인천 대표 축제로

미술·백일장·산사음악회 등 '다채'

역대 조사 추모하는 다례제 개최

인천·강화 독립운동가 영산대제도

화 출신 이순승 독립운동가의 위령대제가 진행된다. 이순승 독립운동가는 1939년 중국 추림현 근남파를 활동근거지로 정보수집을 전개하다 1942년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해 독립운동을 펼친 인물이다.

10월 10일과 11일에는 지역문화 한마당과 남사당놀이 공연이 열린다. 인천 강화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준비한 '지역문화 한마당'은 관악곡연, 요술춤, 벨리댄스, 전통무용, 민요 등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삼량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 간 강화도 전등사 일원에서 '제15회 삼량성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영산대제의 모습. 축제 조직위는 2012년부터 매년 인천·강화 지역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축제 마지막 날 진행되는 '남사당놀이'는 풍물, 버나, 살판, 줄타기 등 생명의 공연이 펼쳐지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통찰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중견작가전'을 비롯해 '문인화전', '그림전시 원용전', '고기와 그림전', '연꽃 사진전' 등 다양한 전시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현대미술 중견작가전'은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어 있던 정족사교 특별전시관에서 전시하여 주변풍경과 작품전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한, 소방안전체험·화문석공예·한지공예·도자기물레·목공예 등 각종 체험 행사와 먹거리 장터·지역 특산물 장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꾸며진다.

축제 조직위원장 범우(전등사 주지)는 "삼량성은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성으로 고려 대몽항쟁과 조선왕조실록, 병인양요, 의병전투 등 우리 역사와 함께 한 곳이다. 특산물이나 자연물이 아닌 역사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진행되는 축제다보니 매년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면서 "우리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어린이와 학생들은 배움과 체험을, 어른들은 추억을 쌓는 온 가족이 즐기는 축제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신행 · 포교 소식

청소년 문화체험 "꿈과 희망을 펼쳐라"

삼광사, 10월 3~4일 문화캠프 '1박 2일' 개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한 문화체험의 장이 마련된다.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10월 3일~4일 '청소년 문화캠프 1박 2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고등생 청소년 2백여 명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 △희망진로체험 △문화공감 콘서트 △탈놀이 및 화합의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토크콘서트 '꿈과 희망을 펼쳐라'는 첫째 날인 3일 오후 2시~4시 삼광사 불교대학 제1강의실에서 열린다. 불교방송

BBS 이명학 총괄국장 사회를 맡아 무원 스님,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박세현 나눔신경정신과 박사를 비롯한 청소년 2백여 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패널로 함께한다.

삼광사는 "문화체험 콘텐츠를 통해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우 간 유대 강화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우곡선원, '마음동산 꾸미기' 참선 교육

10월 13일~11월 1일 매주 화·목 진행

선 수행의 일상화·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참선도량 해운대 우곡선원(선원장 장명화)이 초심자를 위한 참선 교육을 실시한다.

우곡선원은 10월 13일~11월 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8시 '제76기 초심자를 위한 마음동산 꾸미기' 참선교육을 진행한다. 장명화 선원장과 범사단이 지도에 나선 이번 과정은 화요일인 11월 1일 특별행사로 만행정진이 예정되어 있다.

일정은 △선입문의 예(禮) △좌선과

호흡 △참선입문론 △사람의 참품세 △선체조 △달승호흡의 정의 △마음되기 △실상관법 △우곡의 선 △선과 21세기 순서로 진행된다.

우곡선원은 "불교는 이적이거나 구원,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며 인간불사를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고등종교'라며 "불자는 섬 없는 바라밀을 행함으로써 온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자비회사로 실시구시하는 자제가 필요하다"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051)740-6288 하성미 기자

천태종, 을미년 재가불자 하안거 원만 회향

9월 18일 구인사서 해제 법회 열어

남 141명·여 745명 등 886명 이수



천태종(총무원장 총광)은 9월 18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도용 종정 스님을 비롯해 안거 동참자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9회 을미년 하안거 해제식을 봉행했다.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와 전국 말사서 진행된 재가불자 을미년 하안거가 원만 회향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총광 스님)은 9월 18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도용 종정 스님을 비롯해 안거 동참자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9회 을미년 하안거 해제식을 봉행했다.

이번 하안거는 8월 19일부터 9월 18일 까지 단양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말사에서 진행됐다. 구인사 하안거 이수자는 남자 141명, 여자 745명 등 총 886명에 달했고, 각 지역 말사에서도 재가불자들이 천태종의 수행종풍인 주경야안을 실천했다.

이 자리에서 도용 종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닦을 수 없다. 계율이 청정해져 욕심이 떨어진다"며 "도를 잘 닦으면 육체가 떠나도 공부한 것을 잊지 못한다. 이 생에서 마음을 잘 닦아 공부하는 데 걸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총광 스님도 축사를 통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불자들의 수행도 풍년이 들었을 것이다. 한 달 동안 불조의 혜명을 잇기 위해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서 안거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수행의 공덕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신심이 더욱 굳건해지고 지혜가 증장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해제식서 도용 종정 스님은 안거 동참자 대표로 조장묵(남, 서울 관문사)·엄필한(여, 서울 관문사)·송덕희(여, 도계 영락사)·이계주(여, 부천 천화사)·안영희(여, 서울 관문사) 불자에게 이수증을 수여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스님들에 올바른 인성교육법 '전수'

한마음과학원, 11월 5일~7일 한나무인성교육지도자과정 실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인성교육법을 전수하는 장이 열린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불교적 가르침을 토대로 한 인성교육 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은 11월 5일~7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구원서 '한나무인성교육 지도자과정-승려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조계종단 스님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쉽고 재밌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2박 3일간 강의는 포교원인증 청소년심성개발프로그램 (꽃을 피우는 나무)를 주제로 △시작단계 마음의 벽 허물기, 자생중생 다스리기 △1단계 '술

을 보는 이, 나무를 보는 이' △2단계 '마음의 힘과 소통' △3단계 '변화하는 나'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강사진은 김민선 창원 도계초 교사,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박성례 광남중 교사, 박옥남 경남한마음인성교육연구원 교사, 박종숙 호서대 중어중국어 교수, 황수경 한마음과학원 인문분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모집정원은 30명이며, 접수는 11월 2일 마감한다.

한편, 한나무인성교육프로그램은 2012년 교육부 공익법인(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주최 학교부문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 2014년 포교원 청소년심성개발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바 있다. 문의 (031)470-3196, 3200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신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좌

-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15. 10. 3(토) 오후 1시부터 ~ 10. 4(일) 오후 4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천사(강의실)
 - 준 비 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